

1918년 붉은 군대 복무신조

〇 〇

ДОНЕЦКИЙ УГОЛЬ ДОЛЖЕН БЫТЬ НАШ!



НЕТ УГЛЯ-СТОЯТ ФАБРИКИ.

НЕТ УГЛЯ-СТАНУТ ПОЕЗДА.

ПОКУДА ДОН НЕ НАШ-
ГОЛОД С НАМИ.

**ПОБЕДА НАД ДЕНИКИНСКИМИ БАНДАМИ,
- ПОБЕДА НАД ГОЛОДОМ.**

№ 21

ИЗДАНИЕ СРЕДНЕГО ТИРАЖА НЕОБЯЗАТЕЛЬНО
ПОДЛЕЖИТ СОВЕРШЕННОМУ ПЕРИОДИЧЕСКОМУ ДИАГНОЗУ

복무신조 얘기가 나온김에 올리는 1918년 붉은 군대 복무신조

1. 나는 노동 인민의 자손이자 소비에트 공화국의 공민으로서 노동자-농민 군대의 전사 칭호를 받는다.
2. 나는 이 칭호를 명예롭게 여기고, 군사학을 성실히 공부하며, 약탈자와 착취자들에게서 국가와 군의 재산을 백방으로 보위할 것을 러시아와 전세계 노동계급 앞에 맹세한다.
3. 나는 혁명적 규율에 따르고 노동자-농민 정부의 권력으로 부터 계급을 부여받은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맹세한다.
4. 나는 동지들과 소비에트 공화국 공민들의 존엄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노동 인민 해방의 과업에 헌신할 것을 맹세한다.
5. 나는 소비에트 공화국을 모든 적과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위하기 위해 노동자-농민 정부의 소집에 응하고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과 사회주의와 인류애를 위해 전투에서 나의 힘과 목숨을 아끼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6. 만일 내가 이 엄숙한 맹세를 고의로 위반한다면 나는 모든 이의 증오를 받고 혁명적 법의 정의로운 징벌을 받을 것이다.

출처: <https://soviethistory.msu.edu/1917-2/red-guard-into-army/red-guard-into-army-texts/solemn-oath-on-induction-into-the-worker-peasant-red-army/>